

신흥역(도시철도)

최근 수정 시각: 2025-09-24 14:33:02

분류: 남구(효빈)의 철도역 | 1989년 개업한 철도역 | 효빈 도시철도 2호선, 효빈 도시철도 4호선, 효빈 도시철도 8호선 |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

1. 개요
2. 역 정보
3. 역 주변 정보
3.1. 출구 정보
4. 일평균 이용객
5. 승강장
6. 연계 교통
7. 기타

신흥역			
외선순환 상가	2호선 (218)	내선순환 당가	
← 1 km	2	4	8
해운산업지구 방면 노전	4호선 (419)	천가방면 백합공원	
← 0.75 km	4	1.14 km →	
신흥 방면 북평단	8호선 (816)	신흥 방면 창문공원	
← 1.17 km	8	1.54 km →	

역명 표기		
2호선	신흥	
4호선	Haga	
8호선	下街/下街/ 下街	

주소		
효빈광역시 남구 신흥동 1283 지하		

관리역		
신흥관리역		

운영 기관		
2호선	효빈교통공사	
4호선		
8호선	효빈교통공사	

개업일		
2호선	1989년 2월 3일	

4 호선	2003년 3월 5일
8 호선	2024년 3월 4일
역사 구조	
지하 3 층 지상 2 층	
승강장 구조	
2 호선: 복선 섬식승강장 4 호선: 복선 상대식 승강장 복선 상대식 승강장 (8 호선)	

1. 개요

효빈 도시철도 2호선 218번 및 4호선 419번, 효빈광역시 남구 신흥동 1283지하 소재.

2. 역 정보

3. 역 주변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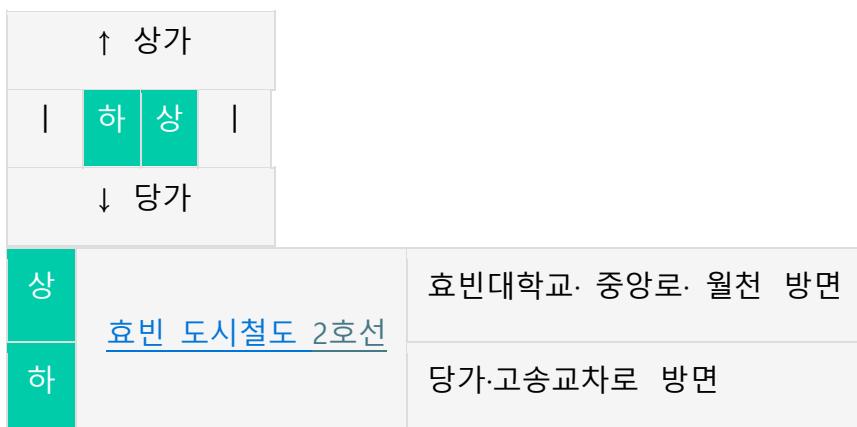
3.1. 출구 정보

신흥역 출구 정보	
1	
2	
3	
4	
5	박산초
6	월천동행정복지센터
7	

4. 일평균 이용객

연도	2	4	8	총합	비고
2020년	16,534 명	19,946 명		36,480 명	
2021년	16,718 명	20,168 명		36,886 명	
2022년	19,440 명	23,452 명		42,892 명	
2023년	19,781 명	23,864 명		43,645 명	
2024년	20,128 명	24,283 명	10,382 명	54,793 명	

5. 승강장





6. 연계 교통

구분	정류소명	노선 번호
순방향	신흥역	4, 19, 79, 292, 791, 792
역방향	신흥역(건너편)	04-1, 91, 97, 922, 791, 792

7. 기타

- 지하와 지상을 아우르는 남구의 '교통 요새': 신흥역은 효빈 도시철도 2호선(순환선), 4호선(남북 간선), **8호선(경전철)**이 만나는 효빈시의 몇 안 되는 '트리플 환승역'이다. 특히 이 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수직 환승 구조에 있다.
- 지하 3층 (4호선): 2003년 개통된 중전철이 지하 깊숙한 곳을 달린다.
- 지하 2층 (2호선): 1989년 개통된 1기 지하철이 그 위를 지난다.
- 지상 2층 (8호선): 2024년 개통된 최첨단 고무차륜 AGT가 도로 위 고가 선로를 달린다.
- 즉, 4호선에서 내려 8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지하 3층에서 지상 2층까지, 아파트 5~6층 높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'대장정'이 펼쳐진다. 이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쉼 없이 이어져 있어 **'신흥역 천국의 계단'**이라는 별명이 붙었다.
-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환승: 환승 통로를 걷다 보면 시대와 공간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체험할 수 있다.
- 2호선/4호선 구역은 80~90년대 특유의 묵직한 돌기둥과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어 다소 어둡

고 중후한 지하 요새 느낌을 준다.

- 반면,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면 8호선 역사의 통유리를 통해 남구의 도심 풍경과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. 어두운 과거(지하)에서 밝은 미래(지상)로 나아가는 듯한 독특한 시퀀스를 가진 역이다.
- 산업 전사와 오타쿠의 교차로: 역 인근은 포장공업단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, 평일에는 작업복 차림의 근로자들이 8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반면 주말에는 4호선을 타고 남쪽의 **안천구(헬로해피/RAS)**나 탄성군(아쿠아) 성지로 향하는 팬들과, 2호선을 타고 시내로 나가는 학생들이 뒤섞여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준다.
- 8호선의 뷰 맛집: 지상 2층 이상 높이에 건설된 8호선 승강장은 남구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인트다. 특히 해질 녘 포장공업단지 쪽으로 지는 석양을 8호선 승강장에서 바라보면, 공장 굴뚝과 노을이 어우러져 꽤나 감성적인 '인더스트리얼 뷰'를 선사한다.